

한일 의용소방대 비교 분석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and Japan

Lee, Eui Pyeong

Jeonju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에서는 한일 의용소방대에 대해 관련법령과 조례, 조직, 보유장비와 시설, 대원 확보대책, 의용소방대 존재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비교하였다. 이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관설소방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방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설소방이 잘 발달된 동경(東京)도 서울과 달리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서 론

소방(消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중화권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갑오개혁이 있던 이듬해인 1895년 을미년 일본을 통해 소방이라는 용어가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¹⁾²⁾. 중화권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용소방대라는 용어도 일본의 의용소방조(義勇消防組, 줄여서 消防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광복 후 소방조(消防組)라는 용어대신에 소방대(消防隊)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대적인 개념의 소방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일본은 관설소방이 발전한 현재도 의용소방대(소방단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하 '소방단'으로 표기함)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³⁾에서 일본의 소방단과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를 발전시키는 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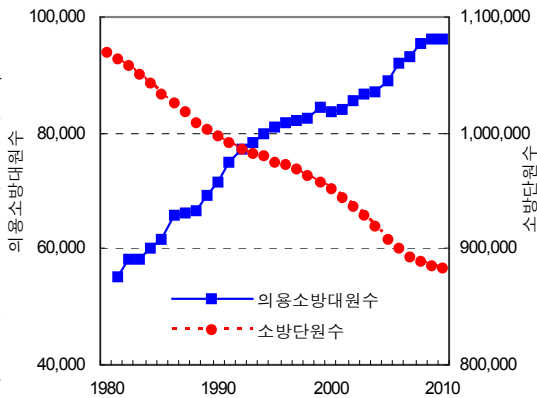
2. 연구범위 및 제한사항

2.1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의 비교

우리나라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소방단은 소방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방책임이 주어지 있으나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소방책임이 주어지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관련 조례는 우리나라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소방조직법에서는 동경도(東京都)의 23특별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광역자치소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소방단원등 공무재해보상등 책임공제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2 조직의 비교

의용소방대는 시·읍지역은 1개대 60名(여성대 50名), 면지역은 1개대 30名(여성대 30名, 지역대는 시·읍·면지역 1개대 20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현재 3,433개대에 96,292명의 대원이 있다⁴⁾. 소방단은 2010년 4월 현재, 2,275개단으로 1개 시를 제외한 모든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단원은 총 883,698명이다. 그림1은 의용소방대원 수와 소방단원 수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단원은 감소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방단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시정촌의 합병에 의한 소방단정원의 감소, 고령화와 소자녀화로 인한 인적 자원의 감소, 소방상비율(소방본부가 있는 시정촌의 비율)의 상승,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過疎化), 주소지와 근무지의 원격화, 지역사회로의 귀속의식의 희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 그림1. 의용소방대원과 소방단원 수의 추이



2.3 활동내용과 실적의 비교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훈련과 화재홍보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으며⁶⁾ 소방기관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방단원은 화재, 인명구조 및 구급, 풍수해등 재해방어활동, 교육훈련, 홍보·지도활동, 경방조사, 화재원인조사, 특별경계, 수색, 예방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화재, 풍수해등 재해, 특별경계, 수색에서는 소방단원들이 소방직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방단은 관설소방기관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조직이 아니다⁷⁾.

i 동경도는 23특별구, 多摩지역(26시, 3정, 1촌, 9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마지역 중 1개시와 9도서를 제외한 지역은 동경소방청에 사무위탁을 하고 있다.

2.4 보유장비 등의 비교

의용소방대에는 장비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소방단에는 소방기관 못지않게 많은 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며, 화재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자동차, 소형동력펌프 적재차, 동력펌프 등은 소방기관보다 소방단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⁸⁾.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소재 의용소방대에는 장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에 비해 동경도(東京都)의 중심지에 위치한 23특별구 내(23특별구 내에 58개의 소방단, 1만 6천명의 소방단원이 있음⁹⁾)에도 2010년 4월 1일 현재, 990대의 동력소방펌프, 경광등과 사이렌 장치가 있는 160대의 동력펌프 적재차, 들것, 이동용발전기(12kg)가 배치되어 있고, 휴대용무전기와 휴대용구조기구 등 각종 기자재도 배치되어 있다. 또한 동경도 소방단의 분단마다 분단본부 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은 각종 경계활동이나 재해시의 활동거점이 되고 가반펌프적재차나 분단에 배치된 기자재등을 격납하며, 평상시는 분단회의, 응급구호등 교육훈련의 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동경도의 경우 소방단원의 정원이 많은 분단이나 관할면적이 넓은 분단에는 재해시 분단원의 집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분단격납고가 있으며 이 격납고에 가반펌프, 각종 기자재 등을 격납하고 있다.

2.5 대원확보대책의 비교

우리나라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등의 논문¹¹⁾⁻¹⁵⁾이나 자료는 있지만 의용소방대원의 확보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나 자료는 없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방재청이나 시도 소방본부 자원의 정책개발에 의해 확보되고 있기보다는 소방서나 의용소방대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소방단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 소방청은 소방단원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1984년도부터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소방청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¹⁶⁾. 소방단원 확보를 위한 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 소방청 홈페이지의 소방단 코너에서 이 자료집(소방단원 확보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 소개된 확보방안으로는 우체국 직원, 소방공무원퇴직자, 농업협동조합직원, 시정촌소속의 공무원, 대학생, 방재전문가나 연구자를, 그리고 기업(사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기업의 종업원을 입단시키며,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용자 소방단원의 증가에 따라 소방단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소방단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소방청에서는 소방단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소방단에 대한 협력의 증표로 표시증(유효기간 2년)을 교부함으로써 사업체의 사회공헌으로서 칭송하는 「소방단 협력사업체 표시 제도」를 제정해 시정촌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¹⁷⁾.

2.6 존재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관설소방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지금은 도서지역이나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관설소방이 담당하다보니 대도시 등 관설소방이 잘 갖춰진 지역은 더 이상 의용소방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대도시는 관설소방(상비소방)이 잘 정비되어 있어 평상시 재해대응은 관설소방이 그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지진재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시에는 관설소방력만으로는 필요한 소방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되며 소방단은 지역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재해 시 소방단의 활

동은 아주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⁸⁾.

3. 결론

앞에서 관련법령과 조례, 조직, 보유장비와 시설, 활동내용과 실적, 대원확보대책, 존재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의 비교를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관설소방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방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도시지역 등 관설소방이 발달된 곳은 더 이상 의용소방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활성화하여 소방방재력을 높이면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행정자치부, “한국소방행정사(1999 증보판)”, p.33(1999).
2.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2009년 증보판)”, p.83(2009).
3. 이의평, “일본의의용소방대 운영실태의 분석” 화재소방학회 2011년도춘계학술논문발표회논문집, pp.276-281(2011).
4.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p.106(2011).
5. 이의평, “일본 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pp.64-73(2011).
6.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p.109(2011).
7. 消防廳(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142 (2010).
8. 消防廳(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120(2010).
9. 東京消防廳, “東京の消防”, p.19(2010).
10. 東京消防廳, “消防行政の概要”, pp.46-47(2010).
11. 이점동, 윤명오, 최돈묵, “한국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2권 제4호, pp.95-104(2008).
12. 허남길,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pp.24- 29(2007).
13. 이강일, “한국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방재기술전문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pp.39-54(2006).
14. 이선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pp.16-18(2005).
15. 이점동, “한국의용소방대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2005).
16. 이의평, “일본 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pp.66-67(2011).
17. 이의평, “일본 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pp.68-69(2011).
18. 消防団の充實強化についての検討會, “「消防団の充實強化についての検討會報告書」”, 消防廳, pp.1-2(2010).